

# CONVERGENCE

#1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오브라이언 · 스미스 · 브라이트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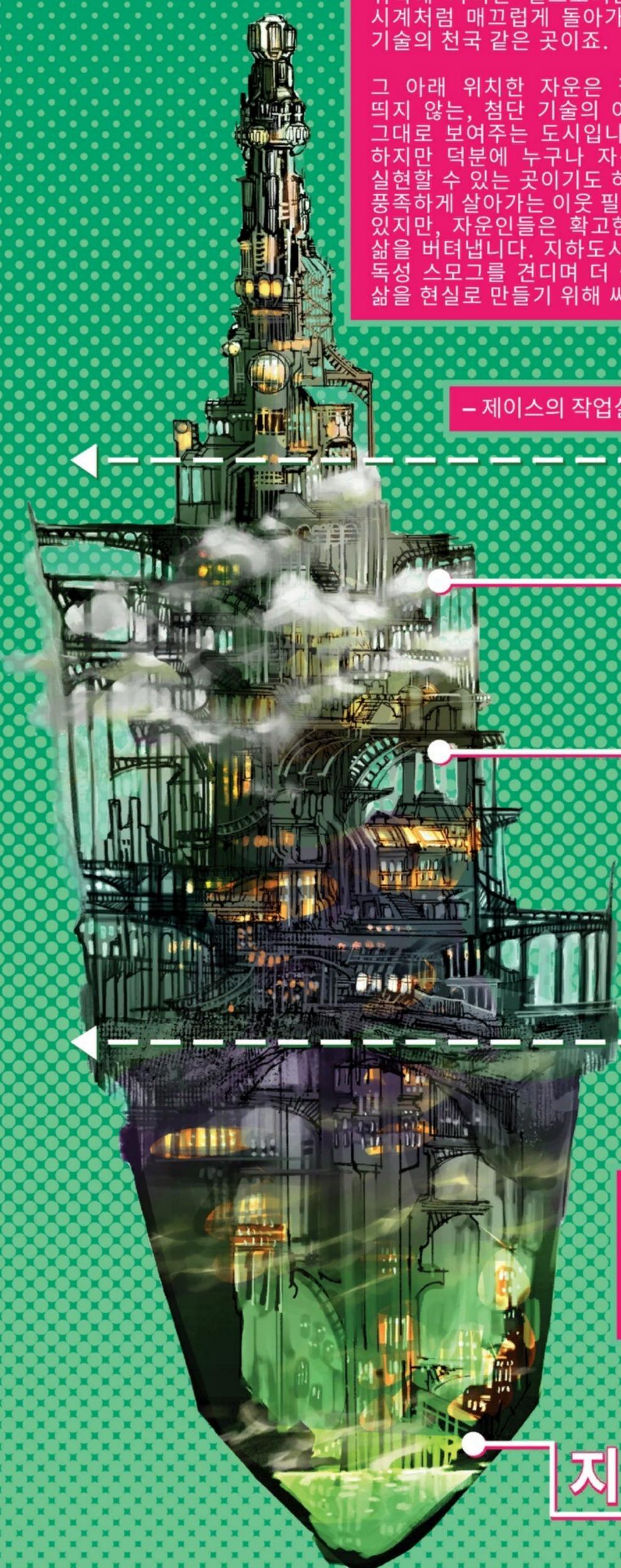
# 필트오버와 자운

구조 측면도

필트오버와 자운, 이 두 도시는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필트오버는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깔끔하고 부유한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 아래 위치한 자운은 필트오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첨단 기술의 어둡고 불쾌한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무법 천지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제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쪽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웃 필트오버의 그늘에 눌러 있지만, 자운인들은 확고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지하도시 자운의 짙고 음울한 독성 스모그를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고,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 제이스의 작업실

필트오버  
공요

최상층

중간층

- 승리 축제  
- 반 클레그 산업

자운 상층부  
음우우 공요

- 에코의 아파트  
-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 빅토르의 오래된 실험실

지하동굴

아트  
Eric Canete



**에코**는 자운의 소년 발명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은 첨단 기술에 능숙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죠. 에코의 발명품 중 최고는 단연 **Z-드라이브**입니다. 주변의 **시간을 되돌려** 몇 초 전의 일을 되풀이할 수 있죠. 에코는 이 Z-드라이브를 써서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실수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요.

하지만 시간을 입맛대로 조작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결국 에코 주변의 세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교차(**Conv/rgence**)>의 앞선 이야기 격인 이 코믹에서, 에코는 시간을 되돌려 몇 초 후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여행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흐르게 둔다는 것은 에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CONV/RGENCE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 완벽한 인생

존 오브라이언

글

디트리히 O. 스미스

레이아웃

디트리히 O. 스미스 (1-4편)

크리잼 자모라 (5편)

펜슬 작업

디트리히 O. 스미스 (1편)

윌리엄 윌포드 (2, 4편)

크리잼 자모라 (3, 5편)

잉크 작업

카일 브라이트빌

채색

Studio RAM

레터링 (유럽 언어)

Comcraft의 타일러 스미스

레터링 (유럽 언어 외)

코리 루이스

표지 아트

사브리나 퍼치

카이트 게리 (1-3편)

에디터

몰리 마한

코믹 내러티브 총괄

메리 검포트

감사한 분들



여긴 필트오버—청결하고,  
부유하고, 질서정연한 곳.



필트오버는 진보의  
도시라지? 갖가지  
마법공학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안개 자욱한 그 아래  
이곳은 자운. 필트오버와는  
너무나 다르지.



여기 자운에선  
쓰레기를 주우려고  
아귀다툼인데.

필트오버에선 여길  
황무지라 한대지만...



...나와 친구들에겐  
고향이야.

빨리 와!  
거의 다 왔어!

≡허억 허억≡  
나 못 탈 것  
같아.

빨리 와, 렘!  
이걸 놓치면 우리  
계획은 다 끝이야.





온다!

자운에는 법이 없어.  
하고 싶은 건 뭐든 해도  
되는 무법지대야.

취이아이



빨리 빨리!  
더는 못 붙잡고  
있겠어. 뛰어!



요즘 널 돈이 없으면  
급행 하강기로 곧장  
뛰어들어도 돼.



쿠당탕

착지 완료!



콰앙

부다다다다

좀 아슬아슬한데...





그래서 Z 드라이브를 만들었지.

1차 퇴감기

이건 시간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입자로 바뀌서 과거로  
되돌리는 장치야. 엄청나지?

쉽게 말해 재도전을  
가능하게 해줘...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딱 몇 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바로잡지.



앗, 뒤로 한 바퀴 돌고  
착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들 감동  
좀 먹었나 봐.



짜깁깁

우와! 이렇, 이렇게  
멋지게 착지하기까지  
몇 번을 되감은  
거야?

무슨 소린지 못  
아들겠는데,  
스키즈.

짜깁깁

우린 자운의 잃어버린 아이들이다.  
대부분 가족이 없고,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간다. 선을 넘지 않게 자제도 시키고.

넌 되감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  
에코. 우린 다  
알아.

짜깁깁



그래, 하긴 했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맞아, 오늘 아침에도  
에코가 되감기를  
해줘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잖아. 그 토스트  
맛있었는데.

바로 그게 문제야.  
토스트 따위에 시간  
여행이라니.

에코 재는 되감기  
중독이라니까.



중독? 난 우리를 위해서만 Z 드라이브를 쓰고 있다고.

우리? 우리? 네가 무슨 소릴 하는지 알기나 해? 넌 퇴감기를 안 하는 적이 없어. 모든 걸 네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린 너의 시간 여행에서 부속품밖에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야. 나, 나는 에코가 퇴감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해. 아까 착지도 뒤로 한 바퀴 돌기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안 했잖아.



첸시, 내 말 좀 들어봐. 여긴 필트오버가 아냐. 깔끔하게 안전하고 뒤탈 없이 일이 마무리되는 적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지만.



하지만 어쨌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싫다면, 남에게 허점을 보여선 안 되잖아?



그래도 약속할게. 앞으로는 진짜 필요할 때만 Z 드라이브를 쓰겠다고.

...그러니 이번 착지만 한번 더 할게.

하기만 해봐!!



알았어, 알았어. 거의 완벽한 착지가 될 텐데, 어쩔 수 없지.

이번 역은 중간층입니다...



... 승리 축제에  
가실 분들은  
하차하십시오...

이제 나한테  
잔소리는 그만하고  
축제나 즐기러  
가자. 응?



중간층 여러분!  
저희는 **잉크스**입니다. 이  
재미없는 축제를 신나게 만들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빅토르** 조각상 팔아요!  
실물과 똑같아요!  
**빅토르**가 **제이스**에게  
패했던 순간을 기념하면서  
불태워 보세요!

**제이스**의 책  
있어요! **제이스**  
전기 사세요!

너네 먼저 가.  
아빠 드리게 책  
좀 살게.



“나는 **빅토르**!  
나의 기계 혁명에  
동참하라, 아니면  
죽음뿐이다!”

“나는 미래의 수호자  
**제이스**! 내가 너를  
막겠다. 이 유명한  
**해머 캐논**으로!”



“내 몸에 불이  
붙었다! 이것이 내  
사악한 과학의  
종말인가!”



**빅토르**의 몸  
부품이 지금도  
**지하동굴** 어딘가에서  
녹슬어가고  
있다던데.

비, **빅토르**가  
살아서 **하수관**에 숨어  
있다고 들었어. **로봇** 쥐  
군단을 거느리고.

그런 거짓에  
현혹되지  
마세요,  
친구들.



형제자매들이여,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광된 진화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빅토르 님의 진실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기계 개조 같은 건 돈 많은 정신병자들이나 하라 그래요.

빅토르 님의 완벽을 위한 계획을 부정하십니까?

빅토르가 제이스한테 완벽하게 당했으니깐, 계획이 제대로 실현됐네요.



한없이 약하고 타락하기 쉬운 젊은이들이여. 부디 퇴락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뭐하는 짓이야!



그 더러운 기계 손으로 내 친구를 건드리지 마.





1차 퇴감기

... 이것들 동력을 차단해야 해.

영광된 진화단은 육신의 존재에게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허업!



파치익

좌-좌-좌아아

그오오...



츠와앗

에코! 도와줘!

저 녀석, 빠르잖아...



**2차 퇴감기**

...저 녀석을 먼저  
처리해야겠어.

영광된 진화단은 육신의  
존재에게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래, 알겠다,  
알겠어.

**츠앗**

그오...

웃차아!

하앗!

**프속  
프속**



봤지?

호오오...

초음속



진짜로 필요해서 되감기를 한단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 봐.

바뀌어야 할 사람은 에코가 아닌지도.

그래. 우리가 좀더 분발해야 할까봐.

애, 애들아. 내가 박치기로 한 놈 해치운 건 봤지?



그, 그래서 머리가 아파. 조금만 쉬자. 저 인형극도 마저 보고. 응?



먼저 가 있어. 난— 도와줄까?



조금 전 소동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더구나.

어쩌라고요? 그놈들이 내 친구를 건드렸는데.

내 말은 그자들이 벌인 짓이 그렇다는 거야. 저런 광신도들 때문에 기술 발전이 오명을 뒤집어쓰는 거지.



나는 줄스 반 클레그라고 하네. 앞으로 저런 일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야.

뭘 바꾼다고요?

사람들이 기계적 증강을 생각하는 방식 말일세. 기계적 증강은 더 이상 세뇌당한 광신도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난 자운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개조체를 새로 만들고 있어.



광고는 딱 데 가서 하세요. 난 돈 없으니까.

그런가...



자네 운이 좋군. 난 돈을 내라고 하지 않거든.

그럼 뭐 잘나신 자선 사업가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들어보게.



솔직히 말하지. 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싶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개조체를 이식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필트오버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그땐 돈을 왕창 받고 필트오버에다 제품을 파시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난 개조체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잘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지.

여기서 살아가는 법은 내가 잘 알아요....

“...난 지하  
출신이니까.”

엄마!  
아빠!

아들!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네.

보청기가  
또 고장났나 봐.

아빠,  
선물 하나  
사 왔어요.

고맙다, 아들이.  
책이니? 빨리  
읽어보고 싶구나.

무슨  
내용이니?

어... 표지에  
제이스 얼굴이  
안 보이세요?

잠깐만...  
내 안경을 어디  
뒀더라...?

여기 있잖아요,  
아빠. 저...  
괜찮으세요?

애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아, 제이스구나.  
그래, 대단한  
사람이지.



이나, 안 돼요.

애도 알 건 알아야죠, 와이어스.

뭐... 뭔데요?



아빠가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석 달쯤 후엔 아예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라고 하더구나.

아빠 일 때문이죠? 그 화학약품들 때문에... 처음에는 청력이 떨어졌는데, 이젠 눈이라고요?



저 멍청한 필트오버 때문에 아빠가--

뭐든지 필트오버 탓으로 돌릴 순 없잖니. 그 화학공학 공장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제이스한테 이 일을 알리면 어떨까요? 만약 자기가 납품받는 공장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면--

이런 일에 제이스를 끌어들이면 안 돼.



제이스는 영웅이라면서요. 아빠를 도와줄지도 몰라요. 제가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우리 제이스가 했던 대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과 든든한 두 손으로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거란다, 아들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우리 뿐이야.”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지하도시 그 자체인 곳”

너네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좋은  
쓰레기를 잔뜩  
찾았거든.

우와! 이  
부품들!

낡아빠진  
무릎패드가  
잔뜩 있네!

광학 안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보이면  
말 좀 해줘.

이야!  
이건 어때?

렘, 난 아빠  
눈을 고치려는  
거야. 발이  
아니라.

하긴 3개월 후면  
아빠 시력을 완전히  
잃을 테니 안경도  
소용없겠지만...

“난 자운인 모두에게 혜택이 갈  
개조체를 새로 만들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으음.

나...  
먼저 갈게.

그럼...  
이 부츠 내가  
가져도 돼?

중간층에 위치한 반 클레그 공업

그런 일이라면  
잘 찾아왔구나,  
에코...

...우리 회사는 광학 개조  
분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의 시력을  
되찾아드릴 수 있다.

음... 모르겠어요.  
빅토르의 증강체나,  
그 사람이 인간을  
자동인형처럼 조종했던  
걸 생각하면--

그건 다 과거의  
일이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개조체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게 빅토르가  
만들었던 그 괴상한  
개조체처럼  
보이니?

아뇨... 그렇지  
않네요.

아주 세련됐지? 게다가  
그냥 눈에 비해 시력이  
5배나 되지.

새로운  
개조체야. 자운의  
모두를 위한.

작동은 어떻게  
하죠? 음... 아프진  
않나요?

비교적 신속하고  
고통 없이 장착할  
수 있단다.

말로 하서는 믿기  
어려울 테니까, 직접  
보여 주지...



여긴 회복실이야.  
저 사람은 도널트라고  
하는데, 화학공학 폭발로  
한 팔을 잃었지.

좀 어때요,  
도널트?

아주  
좋아요.



원래  
팔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쿠,  
도널트! 자랑  
그만하고 좀  
내려줘요.



자, 어떻게  
생각하나,  
에코 군?

뭐라고 해야  
할지...

빨리 아빠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원하시는 삶을  
되찾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네.



반 클레그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움이 되어서  
기쁘군.

아버님께 곧  
뵙자고 전해  
주게!



이 좋은 소식을 창조주에게 전해야겠지.



좋아, 아직 있었군.

새로운 개조체가 곧 대유행할 걸세. 자네의 두뇌와 내 사람 다루는 기술이 연합하면 이 정도쯤이야.

다음 주면 자운인의 반이 증강체를 달겠다고 아우성을 칠 걸.



자운인의 반?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 반 클레그.

“새로운 개조체. 자운의 모두를 위한.”이라며.

급하기는, 빅토르.

그것도 머지 않았어.

다음 편에 계속!